

화순 사평 빨래방 개소... 어르신 빨래 걱정 뚫는다

이불 등 대형 빨래 고충 해소 수거·세탁·건조·포장·배달도

화순 사평에 빨래방이 문을 열면서 대형 이불 빨래 등 주민들의 이불 빨래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31일 화순군에 따르면 주민 대상 수거부터 배달까지 찾아가는 이불 세탁서비스를 위한 화순 사평 빨래방이 지난달 27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구북구 화순군수를 비롯한 하성동 군의회 의장, 군의원, 읍·면장, 사평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화순 사평 빨래방(이하 화순 빨래방)의 시작을 축하했다.

화순 사평 빨래방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준 영산강유역환경청,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사평면에는 감사

패를 전달했다.

화순 빨래방은 고령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이불 같은 대형빨래를 세탁하기 어려워하는 점에 착안하여, 화순군이 나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현재 대형세탁기, 건조기 등 세탁에 필요한 전문 장비를 갖추고 3대의 수거·배달 전용 차량으로 299개 마을별 일정에 따라 수거·세탁·건조·포장·배달 등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성열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추진했지만, 화순군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은 드물다. 앞으로 화순군을 선진 사례로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화순 사평 빨래방



화순 사평 빨래방이 지난달 27일 문을 열었다.

화순군 제공

을 위해 기금, 보조금 지원과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영산강유역환경청,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사평 면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화순 빨래방으로 화순

군은 새로운 혁신을 일구어 다 함께 누리는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 화순 실현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전남도 '농업인 안전보험' 부담 보험료 최대 100% 지원

전남도가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에 생활안정을 지원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부담보험료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비는 153억2500만원(보조 122억6000만원·자담 30억6500만원)에 이른다.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9만 8000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를 보장한다. 개인, 가족형 상품으로 나뉘며 장해유족 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전남에선 13만3000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3만837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69억9830만원보다 18% 많은 200억5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영석 도 식량유통과장은 "봄철 영농기 이전에 꼭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박간재 기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담양군, 30만원으로 확대

담양군이 여성농업인의 복지서비스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군비를 10만원 확대하고 지원 나이도 상향한다.

31일 담양군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종 문화, 스포츠, 여행,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는 전남도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들의 카드 이용 편리성 제고는 물론 카드발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급 방식을 기존 선불식 충전카드 방식에서 대상자 소유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담양군은 군비를 추가해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추가 지급하고 나이도 현재 75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해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 수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확대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올해 5월경 무기명 선불카드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지원 나이를 확대했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과 일상생활에 지친 여성농업인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신재현 기자

화순군, 식목일 나무 심기 고인돌유적지에 2500그루

화순군은 지난달 29일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유적지 내 보검재 일원에서 임야 1.5ha에 산벚나무 2500그루를 심는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구북구 군수를 비롯한 화순군 공무원, 군의회, 화순소방서, 임업인, 지역주민 등 450명이 참가했다.

화순군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해 봄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구북구 군수 등은 이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들과 함께 산불 예방과 소각금지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를 찾은 방문객들에 반려식물(묘목) 나눠주기를 진행했다.

구북구 군수는 "산림 치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늘고 있다"며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어 한다"고 강조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 2000만원 한도 70% 보조

화순군은 31일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효율적인 정착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화·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고자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중인 자로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며 사업 신청부지는 소유 농지 또는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농지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부대 시설 3300㎡ 이하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부대 시설 1억1000만원, 물품 2000만원 한도로 70% 보조·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61-379-3643)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은 지난달 29일 춘양면 화순 고인돌 유적지 내 보검재 일원에서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화순군 제공

전남농기원 "스타농업인 강사 육성 과정 모집합니다"

4월 중 6개 과정 150명 교육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4월 중 실시할 스타농업인 강사 육성과 스마트팜 활용 시설채소 재배, 무인 농업기계 자율주행 등 총 6개 과정 1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4월 교육과정에 농업마이스터대학 등 장기교육 수료자와 청년CEO 등 선도농업인을 선발해 수준 높은 강의기법을 전수하고 전문 강사로 육성하기 위한 스타농업인 강사 육성 과정이 눈길을 끈다.

스타농업인 강사 육성 과정은 11~12일 운영하며 전달력을 높이는 강의기법과 스토리텔링 강의기법, 트렌디한 퍼스널 브랜딩, 농업인 스타강사 우수사례 등을 교육한다.

스마트팜 활용 시설채소 재배 과정은 15~17일 운영하며 토마토, 파프리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채소 재배와 생

산관리 기술, 병해충 및 생리장해, 가공 및 선별, 마케팅관리 등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체 과정을 집중 교육한다.

무인 농업기계 자율주행 과정은 18~19일 교육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농업기계 활용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시책교육과 함께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 승용이앙기 등의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논콩 안전생산 및 가공 과정은 22~23일 운영하며, 도내 콩 재배 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논콩 재배 및 품질관리 기술과 병해충 및 잡초방제, 재배포장 및 선도농가 견학 등을 통해 배 대체작목으로 각광받는 논콩 재배기술 습득과 수량성 증대에 중점을 맞춰 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밀과 쌀 활용 과정은 23~25일 운영하며, 우리밀과 쌀 활용방법, 가루쌀 특성 및 가공 이해, 선도농가 사례발표 및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우리밀과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굴착기, 지게차, 스kid로더 과정은 25~26일 운영하며,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형 건설기계 중심으로 운전조작 주행실습과 농작업기 로터리 부착실습, 점검 및 정비 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로 문의하면 되며, 교육과정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교육 세부일정은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천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은 "스타농업인 강사육성 과정을 통해 청년 CEO, 현장 우수농업인 등이 농산업 분야 스타강사로 육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교육과정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용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영산강청,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만들기 협약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지난 29일 전남도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가 22개 시·군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 사용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한 뜻을 모은 것.

그간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축제장에서는 행사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먹거리 부스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해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고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만들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축제현장에 쓰이는 일회용 접시,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목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협조하고 전남도는 다회용기 활성화 등 지역축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조진용 기자